

[캐나다] 패션부터 일반 산업까지 확대되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트렌드

KOTRA 해외시장뉴스 (2021. 08. 12)



캐나다에서는 폐플라스틱 활용 패션 및 음식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업사이클링 산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.

-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음식 포장용기, 식기류, 커피 컵 등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이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하였으며, 연간 발생하는 음식 폐기물 양은 294만 톤으로 북미의 평균 음식 쓰레기 양보다 많음.
-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친환경적인 트렌드에 따라 버려지는 폐기물을 활용하는 기술과 제품 개발 증가 추세로 플라스틱,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탄생

❖ ‘업사이클링’이란?

- 폐기물을 매립·분해하는 과정 없이 이전보다 더 좋은 품질 또는 더 높은 환경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과정
 -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추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방지
 - 업사이클링된 물건을 구매해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아껴 쓰고 ‘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보호’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



❖ 캐나다 업사이클링 문화 도입 사례 - 패션 및 소비재 중심 요약 -

- (패션) 몬트리올 지역에 설립된 매트 앤 넷(Mat & Nat), 동물성 가죽을 사용하는 대신 버려지는 나일론, 코르크, 고무, 플라스틱 병 등을 재활용해 가방, 신발, 액세서리 등을 제조해 판매하며, 향후 지속 가능한 재료로 과일 껍질 섬유를 실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혁신적인 방법을 지속 탐색할 계획



- (패션) 캘거리에 위치한 솔레(SOLE)사는 연간 310억 개의 폐기되는 와인병에서 버려지는 코르크를 수집해 여름 샌들, 구두, 부츠 등의 리코르크(ReCORK) 제품을 생산



- (소비재) 찹밸류(ChopValue)사는 매년 약 800억 개씩 버려지는 나무젓가락을 재활용해 인테리어 선반, 책상, 컵보드, 도마 등과 같은 일상소품으로 제조(버려진 나무젓가락들은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분해되기까지 보통 20년 소요)



❖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전망

-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전망
- 업사이클링 산업은 캐나다, 미국, 유럽 등지에서는 친환경적 생산과 윤리적 소비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, 소비자들이 제품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'윤리적 소비'는 새로운 쇼핑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
- 업사이클링 산업에 뛰어드는 우리 기업들도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현지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성장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.